



배재대학교

PAI CHAI UNIVERSITY

캡스톤디자인 팀별 결과보고서

캡스톤디자인 팀별 결과보고서				
학년도 학기	2022년도 2학기			
학과(전공)	컴퓨터공학과	지도 교수명	정회경	
팀 명	내가 먼저다	결과물 형태	애플리케이션	
수행 과제명	강의실 예약 시스템			
팀 구성	성명	학번	학년	비고
	이명우	1761036	3	팀장
	이영웅	1761040	3	
	이경재	1661036	4	
	김상식	1661006	3	
	김완섭	1561012	4	
	이충용	1761050	3	

1) 과제선택(과제명)

팀 구성 후 첫 대면 당시 저희 팀은 장소선정에 어려움을 겪었고 팀장의 의견으로 학교내의 강의실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분의 교수님께 연락을 드리고 조교님께도 말씀을 드리며 허락을 구하였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번거로움을 드리는 이런 방식을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과제선정 도중 강의실을 미리 예약해서 빈 강의실 사용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캡스톤 기간중에 구현해보는 것이 어떠한 의견이 나왔고 학교 건물내에 있는 수많은 강의실 중 수업시간을 제외하고는 소수의 강의실만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이런 학생들끼리의 모임에는 카페나 컴퓨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피시방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학교내에 컴퓨터까지 비치되어진 훌륭한 공간들인 강의실이 사용되어지지 못하는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효율적이지 못한 예약방식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 학생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시간에 바라는 빈 강의실을 확인하고 그 강의실을 예약하여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목표로 강의실예약시스템을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2) 팀구성(팀명) 간단한 설명

팀원은 6명으로 팀명은 “내가먼저다”로서 저희 팀의 주제인 강의실 예약시스템을 구현한 애플리케이션을 이름에 표현하기 위해서 위처럼 팀명을 짓게 되었습니다.

3) 과제수행과정 및 내용(추진방법, 일정, 지도교수 지도체계 등)

조 결성과 주제선정 후 팀계획서를 작성 후 익숙치 않던 애플리케이션 개발과정에 대해서 조사했으며 강의실 예약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을 팀원 모두와 회의를 통해 상의하여 결정한 후 애플리케이션의 구현을 시작했습니다. 구현 도중에도 회의중에 애플리케이션의 세부기능을 계속해서 조정했으며 중간중간 구현에 어려움이 있는 데 팀원과의 회의로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서는 교수님께 말씀드린 후 학교로 방문하여 조수분의 조언을 얻을 수 있었고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도출결과 내용

팀원들끼리 모여 회의를 통해 세부기능을 정하고 역할을 분배하여 맡은 후 의견을 나누던 중에 애플리케이션이 배재대학교 내 전체 강의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여겨져 예약 가능한 강의실의 범위를 c관으로 설정하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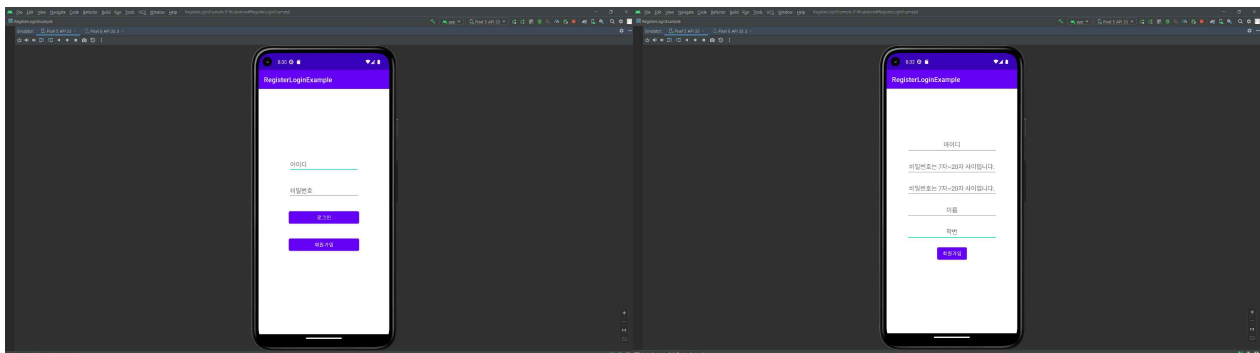
정보과학관 1층

105 전자공학과 사무실 (9.00)	105-1 회의실 (9.00)	104 <컴퓨터> <정보통신> 학과 사무실 (18.00)	103 이공대학강의관 (ACE Study Lounge) (36.00)	102-2 이공대학 교학과 (7.8)	102-1 이공대학(대 학)공학부 교수회의실 (10.2)	101 이공대학(대학) 세미나실 (18.00)	
계단 (27.00)	도움방	통로	106 계정공학과 사무실 (54.00)	통로	출입구	계 단 108 안내실 <7.00>	화장실 (18.00)
	회의실						
	계단개발실 코워드(기명부실연구 소)		106 LA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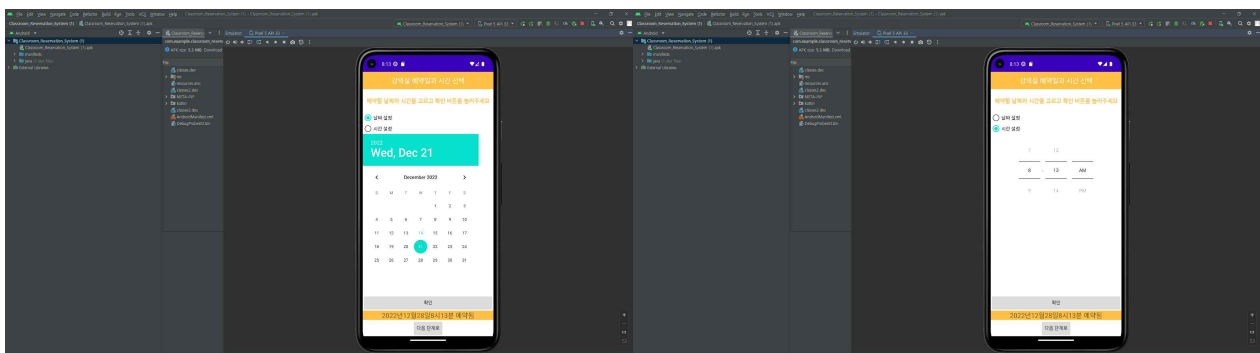
정보과학관 2층

	203 «전자» 전자시스템사플러이성승실 (36.00)		202 «전자, 정보통신» 기초 H/W 실승실 (36.00)		201 «컴퓨터», «정보통신» 기초 S/W 실승실 (36.00)	
계단	206 «전자» ASIC실계승실 (27.00)	205 «컴퓨터» 프로그래밍실승실 (27.00)	204 «정보통신» 정보통신실승실 (27.00)	출입구 상층부	계 단	화장실 (18.00)
					승강기	

먼저 로그인 창과 회원가입 창부터 구현을 시작했습니다.
중복회원가입을 막고 회원가입된 회원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서 가입된 유저의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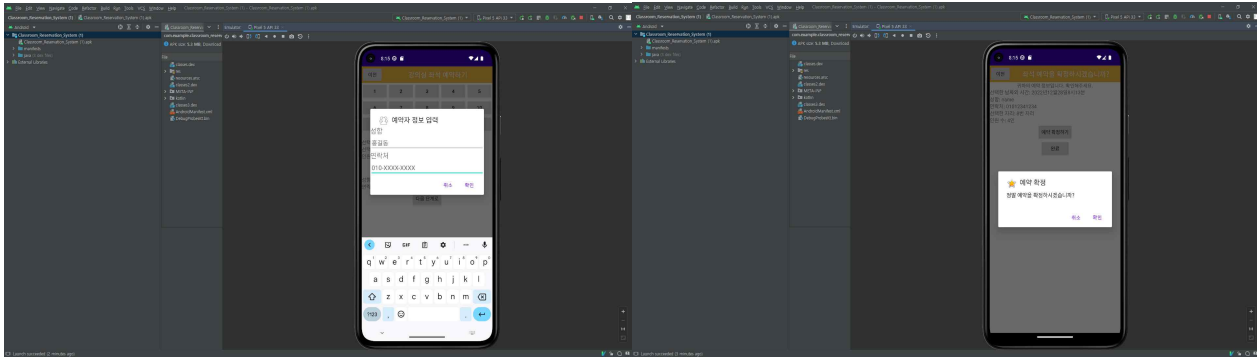
회원가입 이후에 달력창으로 이동되어 강의실 예약을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입력 받습니다.



날짜와 시간을 입력받게 되면 예약자 본인의 이름과 전화번호 같은 연락을 위한 정보를 입력

받으며 예약을 확정하게 됩니다.

- 3 -



이외에도 예약의 취소와 취소 혹은 예약시간 종료 후 데이터 수정(예약자정보)의 기능을 계획 했지만 제출마감까지 능력부족으로 인해 구현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의 사진은 구현만 테스트한 사진이며 아래의 사진들은 이후 애플리케이션의 전체적인 디자인을 해보았습니다.



배재대학교 강의실 예약 시스템

아이디를 입력해주세요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로그인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찾기

날짜 설정

← 2022년 12월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확인



5) 역할분담

회원가입 및 로그인후 예약날짜창으로 이동 : 김상식

일 수 클릭시 강의실에 대한 예약현황확인 : 이영웅

빈 강의실의 예약과 취소 : 김완섭

강의실사용종료후 정보 자동수정 : 이경재

앱 전체 디자인 : 이충용

각종 보고서작성 : 이명우

기본적으로 위처럼 분담하였고 메신저를 통해 각종의견을 주고 받으며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주에 1회씩 1~2시간 가량 6명전부가 모여 회의를 진행하여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한 주 동안 자신이 구현한 프로그램을 팀원 모두에게 보여주며 미흡한

부분을 고쳐나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6) 과제수행 후기

처음 팀원들끼리 모여 주제를 정할 때 각종 사이트에 검색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시행한 캡스톤

보고서와 작품들을 보며 너무나도 막막한 심정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이론을 공부하며 시험을 치러 왔던 그 동안과는 달리 직접 구현 해야 한다는 것에 6명 모두가 두려움을 가지고 시작하기도 하였고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있다보니 캡스톤 초반엔 소통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구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도 혼자 해결해 나가다보니 진행도 더뎠고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팀모임을 가진 후 메신저를 통해 정기적모임을 가지잔 의견이 나온 뒤부터는 막히는 부분에 있어서도 팀원의 도움을 받아 함께 해결해나가 캡스톤을 진행할 수

- 5 -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조원 결성과 주제 결정 당시 느꼈던 불편함을 지적하여 직접 주제 삼아 캡스톤을 진행하게 된 것 또한 생소하지만 의미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완벽히 계획했던 것을 끝마치지 못하였다해도 이후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 6 -